

# 모세의 노래(1)

신학박사 조 덕운

[신명기 32: 1-14] 1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2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3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4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5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6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7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햇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보여 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해 주리라.  
8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9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10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 독수리가 자기 등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업는 것 같이 12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도다. 13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14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숫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 1.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통솔 아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느보산 위에서 자기의 120 년 생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과 부족 리더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2 장에 기록된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백성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1 절에서 3 절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 그분의 이름, 그리고 위대하심을 하늘과 땅에 공표하기를 원한다는 선언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죽기 전 날에도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유 위에 높이 앉아 통치하시는 존엄과 권능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하늘과 땅이 알도록 소리 높혀 선언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2 절에서 자기가 세운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혀 생명체에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에 순응하고 그 은택을 사모해야 함을 외쳤습니다. 2 절의 끝 부분에서 언급한 “풀에 내리는 소나기”가 농작물에 어떤 은택을 주는지 아십니까?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구름 속에서 번개에 실린 수만 볼트의 전기로 인한 화학 작용으로 질산 비료가 비에 섞여 땅에 내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료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옥하게 만들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3 절에서 모세는 주의 이름과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유명한 목사가 되거나, 자신이 세운 교회가 메가 처치가 되었다고 자신의 업적을 내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이 수백만명을 40 년간 광야를 통하여 통치해 왔다는 교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40 여년전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순응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감이나 용기나 열정도 없었던 모세가 이제 40 년 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문 앞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동 지역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및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 3 개 부족의 유산으로 배분하였으므로 모세는 약속의 땅 점령의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지도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부족의 흥분과 자긍심이 매우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의 노래에서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자긍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되는 가능성을 미리 잘라버리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적일 때에, 우리의 사업이 순조롭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앞세워 노래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 4 절은 모세가 120 년간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파악하여 믿게 된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40 년간 수백만 백성을 매일 만나와 매추라기와 물로 먹이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온갖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만한 반석같은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큰 보람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처럼 믿고 그분의 판단을 의로운 것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의로우시고 올바르게 하신다”라는 신앙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인생사에 대한 바른 눈과 판단력을 갖게 하며, 세상의 바르지 못한 철학, 종교, 유행 등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 2.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5~7 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인됨, 어리석은 과거를 기억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짓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으로 되돌아 가서는 아니 되지만, 우리의 과거를 잊게 되면 우리의 현재 위치와 그간의 성취한 업적들로 인해 교만해 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온 세계가 경험하면서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1 세기의 서방 세계는 하나님을 잃고, 그분의 계명을 소홀히 하며, 사탄의 각종 유혹에 끌려 사회와 가정의 여러 분야에서 거룩함을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한 예배를 잃어 버리고 시끄러운 파티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는 경고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담대함을 잃어 버렸고, 삿군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돌이켜 보라고 모세는 외칩니다.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6 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노예된 상태에서 사셨고, 성화 과정을 통하여 신앙위에 굳게 세우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첫 사랑을 잃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 3.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세상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Chosen People]”이라고 자긍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8 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들에게 땅을 상속물로 정해 주신 일, 즉 창세기 10 장과 11 장에 기록된 노아 후손들이 이 땅에 흩어져 산 일에 대하여 얘기 합니다. 이 민족 확산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벨탑 사건의 전후에 걸쳐 일어났는데, 8 절 후반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0 세기에 발견된 사해 문서의 구약 성서본에 근거하여 이 부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따라”라고 해야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시편 82:6 에서 묘사하는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다”는 구절과 이 시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만드신 “신들 [gods],”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자신들의 책무대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 일이 바로 시편 82 편에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의 9 절에서 모세는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즉, 다른 민족들은 이 신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리는 천사들에게 배정했지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의 몫이므로 특별히 가나안 땅을 배정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합니다. 10 절에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는 광야에서 찾아 내셨다”고 그 구원의 역사를 묘사했습니다. 이어서,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주의 백성이 입은 특별한 은사를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만큼 특별한 존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택을 베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할 것이며, 그 백성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나오며, 종국에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중의 왕이 나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백성은 천사들 중의 하나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40 년 동안 “눈동자 처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를 펴서 받아 죽지 않게 떠 받히는 것처럼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업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였고 [11 절]” 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택을 묘사하였습니다. 1900 년 이상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여러 대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1948 년에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라를 이루고 이제 72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대언자들의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 절과 14 절에서 모세는 훗날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복된 소산을 거두면서 살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는 2014 년에 이스라엘 북부 골란 고원에서 발견된 대규모 유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커다란 천연가스 유전에서는 2019 년 말부터 가스가 생산되어 국내 수요를 감당할 뿐 아니라 주변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는 이스라엘 남부의 풍부한 포도주 생산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통째로 신약 교회로 옮겨졌다고 믿는 소위 대체신학 [Substitution Theology]은 천주교회의 어거스틴을 시발로 하여 신교의 장로교 등 여러 교단들이 붙들고 있는 신학적 오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세의 예언이 신약 교회나 한국 등의 특정한 나라로 전이 되었다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즉 현대의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을 축복하셨고, 오늘날까지 그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이처럼 모세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도록 허용하심을 보고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 오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